



88130119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8 November 2013 (morning)
Vendredi 8 novembre 2013 (matin)
Viernes 8 de noviembre de 2013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유리와 거울

어느 날 유리창에 달라붙은 매미를 본 일이 있다. 나무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등짝만을 보아왔는데, 유리에 달라붙으니 전혀 볼 수 없었던 매미의 배를 보았다. 징그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마음이 없었더라면 유리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얼마나 마음을 존중하는 종자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매미와 나 사이에서 우리는, 매미를 나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나를 매미로부터 보호하기도 했다. 굳게 닫힌 유리창이 없었더라면 커다란 곤충을 가까이하기 두려운 나 같은 사람은 그것의 배를 한참 동안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매미 또한 나에게 배를 보여주며 그렇게 집념에 차서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차단되고 싶으면서도 완전하게는 차단되기 싫은 마음. 그것이 유리를 존재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싶으면서도 그러기 싫은 마음의 미묘함을 유리처럼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는 물체는 없는 것 같다. 가리면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리로 된 용기는 두루 사용된다. 술병도 그러하고 화장품 용기나 약병 같은 것도 그러하다.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은 분명 유리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면서 동시에 허무는 것. 그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단순하게 안과 밖 혹은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것들로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유리의 뒷면에 수은을 입히면 거울이 된다. 우리는 빛을 투과하고, 거울은 빛을 반사한다. 빛이 지나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거울은 피사체를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거울을 보는 눈. 빛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물체가 되었다면, 거울은 빛조차 지나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사하는 물체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투시하게 한다면, 거울은 우리가 무언가를 반영하게 한다. 반사하고 반영한다는 점 때문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이는 거울의 이면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정확한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풍경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 유리를 통하여 우리는 빛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다면,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빛의 길을 따라 “울”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거울은 정확한 풍경을 보여주는 대가로 그것을 반대로 보여준다. 오른쪽은 왼쪽이 되어 있고 왼쪽 또한 오른쪽이 되어 있다. 실체를 뒤집어 보여준다. 이데아와 그림자가 역전된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식의 틀을 뒤집어버린다. 또한, 거울 두 개를 마주 보게 하면 끝없이 자신을 반영하며 마주본다. 거울이 거울을 끝없이 마주 보고 있으면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듯이, 사람이 사람과 끝없이, 그리고 끝없이 마주 보고 있으면 그와 같을 수 있다.

거울은 배면이 수은으로 달혀 있기 때문에 풍경 밖으로 걸어가기보다는 풍경 안에 침잠하게 하며, 우리는 아무것으로도 배면을 달아놓지 않기 때문에 풍경 밖으로 걸어가게 한다. 마음을 확산하는 것이 유리라면, 마음을 수렴하는 것은 거울인 셈이다.

김소연 <마음사전> (2008)

- (a) 이 글에서 사용된 비교와 대조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논하시오.
- (b) 이 글에서 작가는 유리와 거울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 짓고 있는가?

2.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5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10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1997)

- (a) 이 시의 대표 수사법인 반복법과 역설법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b) 이 시에서 표현된 “길”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